

KMI 동향분석

VOL.134
2019 AUGUST

발간년월 2019년 8월(통권 제13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김지연 해외시장분석센터 전문연구원
(kji0911@kmi.re.kr/051-797-4594)
임경희 해외시장분석센터장
(imkh@kmi.re.kr/051-797-4591)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성장 모멘텀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5개 수산기업(타이유니온, 마린하베스트, 마루하니치로, 트라이던트씨푸드, 국연수산)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하고,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에 적용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각기 다르지만, 기업의 성공 포인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태국 타이유니온사는 현지 소비자에게 친근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판매 시장을 확대해 나갔으며,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사는 해외 소비자 행태 분석을 통한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판매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각각 성장했다. 또한 일본 마루하니치로사는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가장 중요시 한 기업으로, 해외 어획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시켰다. 미국 트라이던트씨푸드는 내수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요 맞춤형 제품을 개발·판매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연수산사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판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공통적인 요인은 크게 ‘기업 규모 확대’, ‘제품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장 공략’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통한 주력 판매 라인 구축’, ‘전·후방 사업 수직계열화’, ‘기업 IPO를 통한 공격적 투자’ 등을 해 나갔다.

또한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 생산’, ‘현지 소비자 친숙형 브랜드 인수·합병’,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R&D투자 확대’ 등의 전략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생산·유통 거점 기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제품 판매 시장의 다각화’, ‘판매국별 차별화 된 홍보·마케팅 시스템 도입’ 등으로 글로벌 수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 글로벌 수산기업은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해외시장 중심형),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여(수직계열화)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한 전략을 총 4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수출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제휴·협업을 통한 한국형 수직계열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공 클러스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시스템 개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동시에 한국산 수산물의 현지 유통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 수출기업 주력 판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지 브랜드 보유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마케팅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다각화를 통한 시장 영역을 확대’ 해 나가야 한다. 시장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창출 필요

■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필요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기업의 중소·영세성으로 인해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수산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5개의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함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성공 스토리

■ 태국 타이유니온, 시장성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의 M&A를 통해 판매 시장 확대 전략

- 타이유니온은 사업 초기 새우 생산 및 교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해, 글로벌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
- 수산물 소비자들은 평소 친숙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신규 브랜드 시장 진출 및 제품 홍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Chicken of the sea(미국), John West(영국) 등 현지 유명 브랜드와의 M&A를 통해 시장을 확대 하거나, OEM 방식의 제품 현지화를 통해 해외 판매 시장을 확대하였음
- 이 외 글로벌 수산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제품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연평균 3억 바트의 투자¹⁾를 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노르웨이 마린하베스트, 철저한 소비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판매

- 마린하베스트의 연어 양식을 통한 원물 수출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고부가가치 제품(훈제연어, 카나페, 테린 등) 중심 판매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 함
- 마린하베스트는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서는 현지 소비자 연구를 통해 수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 점을 꼽을 수 있음

1) 글로벌 수산기업 성공 사례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26

- 벨기에 소비자를 위한 연말연시용 연어 카나페 상품, 미국 바비큐 문화 맞춤형 훈제연어 상품, 중화권 연어 수요를 확대를 위한 현지 레스토랑 운영 등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 판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음
- 이 외에도 마린하베스트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각 국에 설립한 지사에 자율적인 의사 결정권을 부여, 현지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인수합병, 그리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등을 해 나갔음

■ 일본 마루하니치로, 국내를 넘어 해외 어획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마루하니치로는 내수 중심 수산물 가공품 판매를 시작했으나,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음
- 다른 글로벌 기업과는 차별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가 아닌 자회사 혹은 합작회사를 통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음
-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가장 중요시 여겨 뉴질랜드 및 호주 배타적 경제 수역 등 해외 어획권 획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대했음

그림 1. 마린하베스트&마루하니치로의 핵심 성공 역량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인포그래픽

■ 미국 트라이던트씨푸드, 투 트랙(Two-track) 마케팅 전략 도입

- 트라이던트씨푸드는 볼락과 연어를 생산·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내수 판매에 집중하였으나 점차 아시아, 유럽 시장으로까지 판매 국가를 다변화해 나갔음

- 트라이던트씨푸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주먹밥용 연어 플레이크, 대구 내장 제품 등 현지 맞춤형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을 내세웠으며, 중국에서는 수출 전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기존 판매 제품을 중국어로 표기해서 판매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자사 고유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우는 투 트랙(Two-track)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 사업 역량을 키웠음
- 최근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기업 R&D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과 유통 체인 물류 간소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데이터수집 프로그램(RFgen mobile data collection)을 통해 효율적인 재고 관리 등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

■ 중국 국연수산, 가격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실제 해외 소비 채널 진출

- 국연수산은 새우 양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한 기업으로, 처음부터 내수 중심이 아닌 해외 시장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음
- 국연수산은 '가격 인하'를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으며, 해외 현지 유통 매장을 통한 상품 입점 보다는 미국 내 중국 레스토랑 등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현지 유통 점유율을 확보해 나갔음
- 미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

그림 2. 글로벌 수산물기업 성장 스토리

구분					
창업기	·1977년 태국 설립 ·주력제품 : 새우 ·비즈니스 : 어획, 교역업(민간)	·1999년 노르웨이 설립 ·주력제품 : 연어 ·비즈니스 : 양식업 (민간→국책사업)	·1943년 일본 설립 ·주력제품 : 어육소시지, 기타 냉동, 가공품 ·비즈니스 : 교역, 유통업(민간)	·1973년 미국 설립 ·주력제품 : 볼락 ·비즈니스 : 어획, 가공, 유통업(민간)	·2001년 중국 설립 ·주력제품 : 새우 ·비즈니스 : 양식, 유통업
성장기	·주력제품 : 참치 통조림 ·주력 판매국 : 미국 →유럽	·주력제품 : 연어 원물 수출 ·주력 판매국 : 유럽→미국→아시아	·주력제품 : 통조림 생산 ·주력 판매국 : 일본 (국내) →북미→유럽 →아프리카	·주력제품 : 볼락, 연어 ·주력 판매국 : 미국 (국내)→아시아→유럽	·주력제품 : 새우 원물, 가공품, 탈라피아 ·주력 판매국 : 미국 →중국
도약기	·글로벌 투자 기반 사업 ·글로벌 증권시장 내 상장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가공시설 설립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 확대 ·원물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수역 어획권 획득	·판매 제품 다변화	·품목 양식, 가공업 확대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인포그래픽

기업, 제품, 글로벌 경쟁력 키워나간 글로벌 수산기업

■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 라인을 구축

-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고유 주력 판매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음
-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

■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사업 영역의 수직계열화

-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1차 가공, 2차 가공, 교역, 서비스, 판매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수직계열화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 초기에는 생산 및 가공에 사업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현재는 전·후방 사업 통합을 통해 수출 및 판매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비용 절감, 사업 효율성 증대, 제품 개발의 용이성 등 다양한 효과를 누렸음
- 타이유니온, 마린하베스트, 국연수산은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마루하니치로와 트라이던트씨푸드는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 최근에는 수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함

표 1. 글로벌 수산기업의 사업 영역별 수직계열화

구 분	사업초기						현재					
	생산	1차 가공	2차 가공	교역		판매	생산	1차 가공	2차 가공	교역		판매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타이유니온	○	○	×	○	×	×	○	○	○	○	○	○
마린하베스트	○	○	×	○	×	×	○	○	○	○	×	○
마루하니치로	○	○	○	×	○	×	○	○	○	○	○	○
트라이던트씨푸드	○	○	×	×	×	×	○	○	○	○	×	○
국연수산	○	○	×	○	×	○	○	○	○	○	○	○

자료: 글로벌 수산기업 성공 사례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96p 참고

■ 적극적인 투자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발판 마련

-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 초기 혹은 도약 과정에서의 기업 IPO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이는 기업 성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음
- 주로 국내외 생산·가공 시설 및 기업 브랜드 인수·합병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적극적인 투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발판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 현지 소비자 친숙형 제품 브랜드 보유로 제품 경쟁력 향상

-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현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는 제품 마케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배경이 되었음
-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식품, 스낵류, 반조리 식품,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 등 현지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켰음
- 글로벌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는 류별로는 어류와 갑각류가 가장 많았으며, 형태별로는 가공품과 냉동품 상품 비중이 높음

그림 3. 글로벌 수산기업 류별·형태별 주요 판매 제품



자료: 「글로벌 수산기업 성공 사례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을 참고로 저자가 재가공하여 작성하였음

■ 해외 생산 거점 기지의 확대, 해외시장 중심형 판매 전략 등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해 현지에서 제품을 가공·판매함으로써 현지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확장시켰음

- 또한 내수 중심 판매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지화 제품 개발, M&A를 통한 브랜드 인수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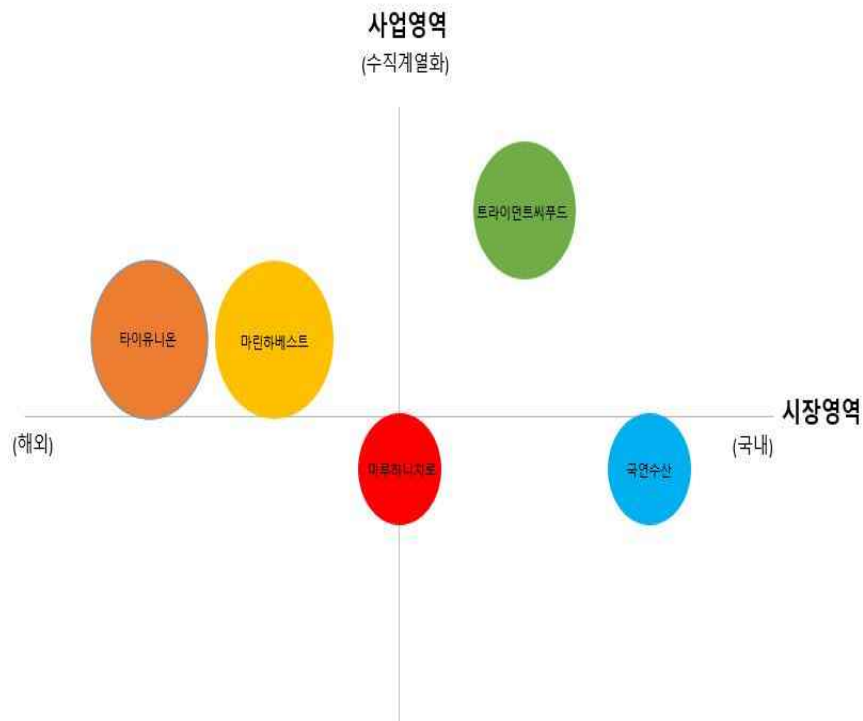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들의 또 하나의 무기, 차별적인 홍보·마케팅

-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제품 판매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기업을 글로벌화 하는데 성공했음
- 현지 소비자 친숙형 브랜드 인수·합병을 통한 기존 소비자 브랜드 충성도를 활용하는 방법 뿐 아니라, 판매 국가의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기업 이미지 인식 제고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함

■ 글로벌 수산기업의 공통적인 비즈니스 성공 모델 : 해외시장 중심형, 수직계열화

- 글로벌 수산기업들의 공통적인 성공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시장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고(해외시장 중심형),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여(수직계열화) 기업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글로벌 수산기업의 성공 모델



주: 사업영역 지표는 글로벌 수산기업의 수직계열화 정도를 '2.5~5~7.5~10'로 점수화 해 표기했으며, 시장영역 지표는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 보유수를 '2.5~5~7.5~10'로 점수화 해 표기하였음

한국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성장 전략 제언

■ 국내 가공 클러스터를 활용, 제휴·협업을 통한 한국형 수직계열화

- 기업의 수직계열화는 글로벌 수산기업의 비즈니스 성공 모델 중 하나로, 원가 절감, 효율적인 생산·판매 시스템, 기존 유통망 확보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등 기업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국내 개별 수출기업이 전·후방 산업을 수직계열화 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기 구축된 수산 가공 클러스터를 활용해 개별 기업 간 제휴와 협업을 통한 느슨한 수직계열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음

■ 수산분야 R&D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시스템 개발

-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원물보다는 고부가가치 가공품 중심 생산으로 기업의 이익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6년 상반기 중국 국연수산의 연구개발비는 945만 위안에 달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해외 유통 시스템 개선 등 제품 개발 후 다양한 국가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

■ 한국 수출기업 주력 판매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한국산 수산식품에 대한 해외의 브랜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였으며, 한국 수출기업도 이러한 마케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해외 시장 다각화를 통한 시장 영역 확대

- 글로벌 수산기업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 판매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도 내수 시장이 포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확대 해 나가야 할 시점임
- 이를 위해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투자,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등을 해 나가야 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양식산업,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횡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증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URL: <https://www.kmi.re.kr/>